

하나금융투자 은행 Weekly

2020년 4월 27일

Analyst 최정욱, CFA (02-3771-3643) | RA 강승원

조정 양상 지속. 실적은 기대치 큰폭 상회

1. 전주 주요 뉴스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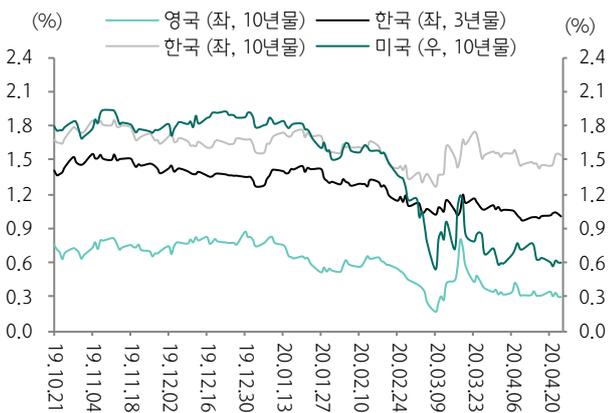
- 기업은행은 한국 무역업체의 對이란 허위거래를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에 달하는 벌금에 합의.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간 유예
-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보상안 마련. 투트랙 방식으로 1) 펀드의 현재가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 후 은행이 펀드를 인수하거나 2) 원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자금이 회수되면 가지급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안 중 고객이 선택 가능
-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난달부터 제공되고 있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 소진을 목전에 두자 예비비 4.4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뿐만 아니라 10조원을 추가 투입해 2단계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 금리는 기존의 1.5%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
- 7개 카드사의 3월 카드론 취급액은 4.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6% 급증. COVID-19 장기화에 따른 불경기로 자영업자나 중저신용자들의 카드론 수요 증가한 듯. 한편 주식 폭락 이후 카드론 대출이 급증하는 경향으로 보아 주식투자자금도 일부 포함됐다는 분석
-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3월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86.3조원으로 전월 대비 2.2조원 증가. 2월말 증가액인 2.1조원을 경신해 두달간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임.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주담대 제한으로 전세 수요가 늘자 전세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추정

2.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0년 4월 24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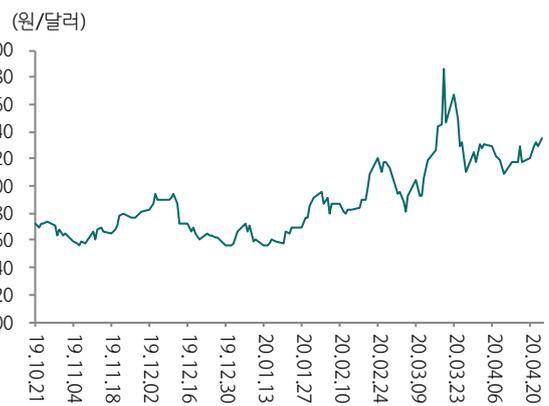
	PBR (2020F)	PER (2020F)	ROE (2020F)	ROA (2020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2020)	국내 기관	외국인	연기금
KOSPI	0.77	12.4	6.2		1,271,159.4	-1.3	17.3	-15.9	-14.0	-1,308.1	-1,398.4	81.7
은행	0.26	3.7	7.2	0.51	45,971.1	-5.0	12.4	-33.0	-35.9	-97.4	-159.4	-8.0
KB 금융	0.30	4.2	7.4	0.58	12,931.6	-3.9	6.7	-33.4	-34.7	-25.7	-51.0	2.5
신한지주	0.32	4.7	7.9	0.56	13,098.0	-4.7	13.4	-34.1	-37.4	-26.7	-44.1	-2.5
우리금융	0.25	3.3	7.8	0.47	5,669.8	-4.5	12.9	-27.3	-32.3	-10.7	-8.7	-2.3
하나금융	0.23	3.2	7.4	0.50	6,950.6	-6.5	20.6	-34.0	-37.3	-20.4	-29.9	0.3
기업은행	0.20	3.0	6.0	0.43	4,155.5	-8.6	7.8	-35.1	-39.0	-15.6	-14.7	-9.8
BNK 금융	0.17	3.0	6.0	0.48	1,510.7	-3.4	21.0	-36.0	-39.5	0.0	-4.2	2.2
DGB 금융	0.16	3.0	5.6	0.35	795.0	-5.1	30.0	-31.9	-34.0	0.8	-5.9	1.1
JB 금융	0.23	2.7	8.8	0.65	859.8	-1.0	20.6	-17.3	-20.5	0.9	-1.0	0.6
삼성카드	0.46	9.3	5.0	1.54	3,220.9	-4.1	7.1	-27.5	-28.0	-0.4	-2.7	1.4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3.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5.0% 하락해 KOSPI 하락률 1.3% 대비 초과하락세 지속. 정부가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추가 발표. 유동성부족기업에 35조원 이상, 기간산업에 40조원 이상 추가 지원 예정. 이 중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10조원 사용 예정. 계속된 금융지원이 결국 은행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전주 국채 10년물 금리가 10bp 가까이 상승하는 등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폭증하는 적자국채 발행액이 시중금리를 상승시키고 있고, 김정은 신변이상설과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실패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주간 18원 가까이 상승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비우호적이었기 때문. 여기에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KOSPI를 각각 1.3조원과 1.4조원 순매도했는데 이중 은행주 순매도 규모가 970억원과 1,600억원에 달해 시가총액 비중 대비 은행주 매도 강도가 거셌던 점도 부담으로 작용. 목요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의 실적이 낮아진 컨센서스를 더 하회해 부진했던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것으로 보임. 반면 개인들의 경우 지난 한주간 KOSPI를 2.6조원이나 순매수하며 국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모두 받아냈는데 은행주도 2,440억원을 순매수하며 수급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상황. 전주 국내 국고채 금리는 1년물 이하 단기 금리는 소폭 하락한 반면 5년물 이상 장기 금리는 상승. 원/달러 환율은 1,235.5원으로 17.6원 상승 마감
- 전주 특징주는 기업은행. 주가가 8.6%나 하락했는데 3월 2,640억원 증자 결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4,125억원의 추가 증자를 결의하면서 dilution 우려가 확산되었고,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미 당국과 1천억원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 해당 벌금은 2019년 4분기 기타충당금 적립 처리에 따라 올해 순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상황. 2014년 해당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 기업은행 외에 우리은행도 관련 이슈 발생. 다만 우리은행의 이란과의 거래 규모는 기업은행의 1/10 정도에 불과하고 우리은행도 2~3년전 몇백억 내외의 충당금을 이미 적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이슈가 우리은행에도 발생한다고 해도 향후 순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하나금융의 주가 하락 폭 또한 타행보다 큰 편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세에 있고, 은행주가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업종내 고베타종목으로 인식되는 하나금융의 주가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1분기 은행 대출성장률이 큰폭 증가하는 모습. 특히 대기업대출이 큰폭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 대출 증가보다는 기존 한도대출의 한도 소진 영향으로 추정.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2분기까지는 대기업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특히 국채 발행이 수십조원 증가하는데다 크레딧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경우에도 금리가 하락하기는 어려운 실정. 대기업들의 경우 은행 대출이 조달상 더 유리한 측면
- 1분기 실적을 발표한 KB금융과 신한지주하나금융의 실적이 엇갈리는 모습. 자본시장 지표 부진으로 기타영업손실이 대거 발생한 KB금융과 달리 신한지주하나금융은 실적이 오히려 서프라이즈.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충당금이 큰폭 하락한 점이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었음. 월요일 실적을 발표하는 우리금융과 기업은행도 신한지주하나금융의 모습을 쫓아갈 공산이 큼. 우리금융은 5천억원을 웃도는 순익, 기업은행도 5천억원에 육박하는 호실적 시현 예상됨. 반면 DGB금융과 BNK금융의 경우는 컨센서스 수준의 실적 시현 전망
- 투자자들은 당장 1분기 실적보다는 2~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은 상황. 그러나 2~3분기 실적도 결국 1분기 실적이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양호한 1분기 실적을 감안할 때 2~3분기에도 은행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 등을 감안시 당장 충당금이 대폭 증가할 개연성이 크지 않기 때문. 결국 만기 일괄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가 만료되는 직후인 4분기 실적이 관건이 될 것. 은행 자산건전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분기가 될 것이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은행 대출포트폴리오와 여신 등급 등을 고려시 대손충당금 증가 규모가 시장의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음.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은 늘 걱정이 앞서는 섹터. 2~3년전부터 낮아진 대손충당금이 결국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계속 개진되었지만 심지어 올해 1분기조차도 시장의 걱정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과도한 선입견은 버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4.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금주 선호 종목] 우리금융, 하나금융

- 우리금융 1분기 실적은 5천억원을 상회해 컨센서스 큰폭 상회 추정. 조만간 내부등급법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아주캐피탈 인수가 예상되는데다 증권 M&A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질 전망. 업종 전반에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서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할 듯
- 하나금융은 금요일 장종료후 매우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전환과 은행주 조정 국면 진입에 따라 동사의 주가 약세 현상이 타행대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주가는 반응할 것으로 판단.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모두 업계 최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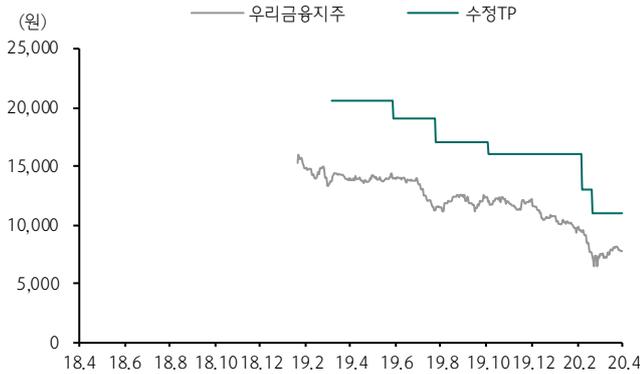
5. Global Peer Table

(2020년 4월 24일 종가 기준)

	PBR (2020F)	PER (2020F)	ROE (2020F)	ROA (2020F)	Mkt. Cap. (bil.)	Performance(%)				
						1W	1M	3M	YTD(2020)	
KOSPI	0.77	12.4	6.2		1,271,159.4	-1.3	17.3	-15.9	-14.0	
은행	0.26	3.7	7.2	0.51	45,971.1	-5.0	12.4	-33.0	-35.9	
KB금융	0.30	4.2	7.4	0.58	12,931.6	-3.9	6.7	-33.4	-34.7	
신한지주	0.32	4.7	7.9	0.56	13,098.0	-4.7	13.4	-34.1	-37.4	
우리금융	0.25	3.3	7.8	0.47	5,669.8	-4.5	12.9	-27.3	-32.3	
하나금융	0.23	3.2	7.4	0.50	6,950.6	-6.5	20.6	-34.0	-37.3	
기업은행	0.20	3.0	6.0	0.43	4,155.5	-8.6	7.8	-35.1	-39.0	
BNK금융	0.17	3.0	6.0	0.48	1,510.7	-3.4	21.0	-36.0	-39.5	
DGB금융	0.16	3.0	5.6	0.35	795.0	-5.1	30.0	-31.9	-34.0	
JB금융	0.23	2.7	8.8	0.65	859.8	-1.0	20.6	-17.3	-20.5	
삼성카드	0.46	9.3	5.0	1.54	3,220.9	-4.1	7.1	-27.5	-28.0	
미국										
S&P 500	3.02	21.6	15.4	2.79	24,493.4	-1.3	16.1	-13.5	-12.2	
은행	0.83	14.8	5.8	0.57	914.4	-3.3	5.4	-35.8	-39.8	
Wells Fargo	0.68	17.9	3.9	0.41	110.3	-5.1	-6.9	-42.8	-50.0	
JPM	1.18	16.3	6.9	0.63	276.4	-4.7	3.7	-31.1	-34.9	
CITI	0.51	12.2	4.5	0.46	89.7	-5.2	6.0	-44.7	-46.1	
BOA	0.79	14.0	6.2	0.62	192.4	-4.7	5.5	-33.4	-37.0	
US Bancorp	1.11	14.4	8.1	0.66	51.2	-3.0	10.3	-36.1	-42.7	
PNC	0.94	16.4	5.9	0.61	42.7	-0.8	13.1	-32.2	-36.9	
TFC	0.77	11.5	6.1	0.88	47.8	6.2	17.8	-35.5	-37.0	
중국										
상해 A 주지수	1.20	11.0	10.3	0.94	32,631.8	-1.1	3.2	-5.6	-7.9	
은행	0.69	5.8	12.1	0.97	8,020.4	-1.8	-0.2	-9.3	-12.6	
공상은행	0.66	5.6	12.0	1.03	1,762.8	-1.9	-1.4	-11.7	-14.1	
건설은행	0.67	5.6	12.3	1.06	1,379.7	-2.4	-2.7	-11.0	-14.2	
농업은행	0.62	5.4	11.6	0.85	1,172.5	-1.2	1.5	-3.4	-7.9	
중국은행	0.56	5.4	10.7	0.84	941.4	-4.2	-1.4	-5.0	-7.0	
교통은행	0.50	4.9	10.4	0.78	351.8	-1.0	1.0	-6.0	-8.7	
초상은행	1.24	8.0	16.4	1.34	815.2	-1.1	3.2	-11.7	-13.5	
일본										
NIKKEI	1.37	15.9	8.0	1.63	315,028.7	-3.2	7.4	-18.4	-18.6	
은행	0.32	7.0	4.5	0.20	25,714.7	1.0	1.4	-22.8	-27.7	
Mitsubishi UHF	0.32	7.5	4.5	0.26	5,622.9	0.3	1.2	-25.8	-30.2	
Sumitomo Mitsui Financial	0.34	5.2	6.7	0.38	3,734.3	0.5	1.3	-28.2	-32.7	
Mizuho	0.35	6.5	5.4	0.24	3,075.0	-0.3	-1.0	-24.0	-28.0	
Sumitomo Mitsui Trust	0.43	6.3	6.9	0.34	1,167.9	0.8	4.7	-22.9	-28.2	
유럽										
MSCI Europe	1.45	16.8	6.1	0.59	8,299.5	-1.1	8.4	-21.8	-21.0	
은행	0.41	9.3	5.2	0.30	488.0	-2.0	-11.2	-42.3	-44.5	
HSBC	0.60	11.5	4.6	0.34	81.9	-2.9	-21.9	-30.6	-32.1	
Santander	0.32	8.0	5.1	0.32	31.6	-2.8	-19.6	-46.2	-49.0	
BNP Paribas	0.32	7.3	4.3	0.15	32.9	3.3	-5.3	-47.3	-50.2	
Credit Agricole	0.32	8.0	4.1	0.29	18.9	0.2	-7.2	-48.0	-49.4	
Deutsche	0.22	N/A	-3.3	-0.17	11.4	-8.3	-10.0	-29.0	-20.5	
Unicredit	0.27	11.3	1.1	0.04	15.0	-2.5	-20.0	-46.3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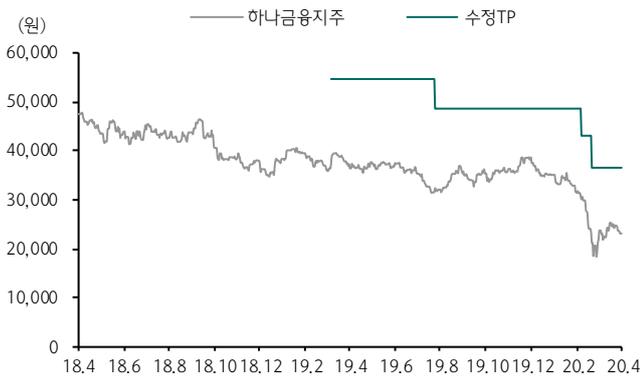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우리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3.18	BUY	11,000		
20.3.4	BUY	13,000	-33.74%	-25.92%
19.10.30	BUY	16,000	-30.24%	-22.50%
19.8.20	BUY	17,000	-29.22%	-25.88%
19.6.24	BUY	19,000	-29.84%	-25.79%
19.4.2	BUY	20,500	-31.52%	-29.51%
19.4.2	담당자변경			

하나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3.18	BUY	36,500		
20.3.4	BUY	43,000	-36.43%	-28.72%
19.8.20	BUY	48,500	-28.06%	-20.21%
19.4.2	BUY	54,500	-32.91%	-27.43%
19.4.2	담당자변경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1.3%	8.7%	0.0%	100.0%

* 기준일: 2020년 4월 24일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0년 4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0년 4월 27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